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충청남도 대전 지역 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도

이주영¹ · 김학희¹ · 김금원² · 김규순³ · 황보설⁴ · 이 안⁵ · 김수진⁶ · 문진희¹ · 고명수¹ · 김현지¹
 김대봉⁷ · 고은영⁸ · 김미혜⁹ · 김민정⁶ · 김은경⁶ · 박성희⁶ · 손은주⁶ · 우옥희⁵ · 김민정¹⁰
 윤희수¹¹ · 최보배¹² · 한부경⁸ · 서보경⁵ · 차은숙⁴ · 이원철¹⁴ · 정수영¹¹ · 오기근¹³

¹울산의대 영상의학과, ²건양의대 영상의학과, ³을지의대 영상의학과
⁴가톨릭의대 영상의학과, ⁵고려의대 영상의학과, ⁶연세의대 영상의학과
⁷분당제생병원 영상의학과, ⁸성균관대의대 영상의학과, ⁹김미혜유클리닉
¹⁰보훈병원 영상의학과, ¹¹한림의대 영상의학과, ¹²충남의대 영상의학과
¹³아주의대 영상의학과, ¹⁴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목적: 설문지를 통하여 충청남도 대전 지역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 정도와 조기발견을 위한 행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지역주민을 위한 조기 유방암 무료검진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전 지역 여성 8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나이, 유방암 검진 (유방 자가검진 및 선별유방촬영술)의 시행여부와 유방암 검진의 동기와 장애, 그리고 유방암에 대한 지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의 연령은 32세 - 67세로 평균나이 50.2세 (표준편차, 9.2)이었다. 또한 2004년 전남 화순, 2005년 서울 지역, 2006년 부산 지역 및 2007년 강원도 춘천에서의 조사와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유방 자가 검진은 38명 (46.3%)이 시행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선별유방촬영술은 67명 (81.7%)에서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전 조사에서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검률을 보였다. 유방촬영술을 시행한 동기 중 가장 많은 것은 정기 검진 (30명, 44.8%)으로 전남 화순 (43%), 서울 (51%), 부산 (47%) 및 춘천 (40.9%)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고, 유방 검진의 장애는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지 않은 총 13명의 응답자 중 시간이 없어서 (26.7%)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유방암 지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5문항 중 평균 1.80개를 맞추어, 화순 (1.66개)과 서울 (1.43개), 부산 (2.02개) 및 춘천 (1.92개) 과 비교 시 각 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산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춘천이었으며 서울의 지식 정도가 가장 낮았다 ($p=0.000$, $p < 0.05$).

결론: 본 조사는 전남 화순, 서울, 부산 및 춘천에 이어 다섯 번째로 시행된 설문지 조사이며, 이 결과는 암 조기검진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유방암 조기진단을 위해 유방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ndex words: Breast cancer; Self examination; Mammography; Survey

통신저자 : 김학희

(138 - 736)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88 - 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Tel. (02)3010 - 4390, Fax. (02)476 - 0090, E - mail: hkhkim@amc.seoul.kr

서 론

유방암은 여성암 중 세계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전세계 여성 암 발생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연간 115만 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50% 이상은 선진국에서 발생하였다. 국내의 유방암은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중앙암등록본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99 - 2002년의 우리나라 유방암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7.0명으로 여성 암 발생 순위에서 위암에 이어 2위(연 발생건수 6,610건)였으며, 2002년에 위암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1 - 4). 최근 각종 언론매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의료기관 등에서 유방암에 대한 교육과 조기발견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위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간암, 그리고 2004년에는 대장암을 추가하여 5대 암 검진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유방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확실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 정도와 행태를 아는 것은 유방암 선별 검진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하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이나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행동에 대한 조사자료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199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의 조사에 따르면 1995년에 1년간 유방검진 수검율이 6.1%, 이원철 등 (6)의 보고에 따르면 1997년 의정부 지역에서 생애 유방 촬영률이 21.6%였다. 대한유방검진학회는 2004년에 전라남도 화순 지역, 2005년에 서울 지역, 2006년 부산 지역, 및 2007년 강원도 춘천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유방암에 대한 조기검진 수검 시행 여부와 지식 정도를 조사한바 있다 (7 - 10). 이번 조사는 같은 설문지로 충청남도 대전 지역에서 시행되어, 지역간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 정도와 검진 실태를 이전 자료와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8년 4월 19일(토) 대전 건양대학병원에서 제9차 대한유방검진학회가 개최되었으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국민 유방암 홍보 및 교육, 무료유방암검진 행사를 시행하였다. 당일 행사장에서 대전지역 주민 참석자들은 유방암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유방 모형으로 자가 검진의 방법과 유방 병변의 특성 등을 교육 받았으며 무료 유방강좌를 들었다. 이들 중 40세 이상이고 선별

유방촬영 대상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무료로 유방촬영술을 시행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82명이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여성들의 나이는 32세에서 67세로 평균나이는 50.2세 (표준편차, 9.2)이었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나이, 유방암 검진 (유방 자가검진 및 선별 유방촬영술)의 시행여부와 유방암 검진의 동기와 장애, 그리고 유방암에 대한 지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유방암 지식을 묻는 문항은 5개였으며, 3문항 이상을 맞추었을 때를 보통 이상으로 정의했다. 설문지 내용은 3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유방 자가검진, 3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그리고 4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1 -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및 유방촬영술을 해야 한다는 국립 암센터 및 한국유방암학회 권고안 (4, 11)을 기준으로 하여 유방자가검진과 유방촬영의 경험이 있는지 조사했다. 또한 위 자료를 화순, 서울, 부산 및 춘천 지역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에 대한 검증은 Fisher's exact test, one-way ANOVA, 그리고 일원배치 분산분석법을 사용하였고, 유방 촬영술 수검의 장애에 대한 기술 통계는 다중응답 분석을 사용하였다.

결 과

대전지역 여성 중 유방 자가 검진은 응답자 82명 (무응답 0명) 중 38명 (46.3%)이 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화순 (73명/131명, 55.7%), 서울 (438명/895명, 48.9%), 부산 (70명/114명, 61.9%), 춘천 (37명/66명, 56.1%)과 비교하여 유방 자가 검진률에 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산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p=0.049$, $p < 0.05$). 생애 선별 유방 촬영술은 응답자 중 67명(81.7%)이 받아 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이중 40세 이상의 여성에서 최근 1 - 2년 내에 유방촬영술을 받은 경우는 54명으로 65.9%이었다. 이전 연구 결과인 화순 (70명/128명, 54.7%), 서울 (489명/894명, 54.7%), 부산 (72/113명, 63.7%), 춘천 (37명/56.1%)과 비교하여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대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p = 0.000$, $p < 0.05$). 40대 이전과 이후의 유방 자가 검진률과 유방 촬영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유방 자가 검진률에 있어서 40대 이전에는 지역간 차이가 없었으나 ($p = 0.055$, $p > 0.05$), 40대 이후에서는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 0.002$, $p < 0.05$), 이는 설문에 참가한 여성들 중 상대적으로 40대 이후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유방 촬영률에서는 40대 이전과 이후에서 모두 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p < 0.05$).

유방촬영을 하게 된 동기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30명 (44.8%)이었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을 보고 시행한 경우가 19명 (28.4%), 유방에 증상이 있어서 6명 (9.1%), 주위 사람의 권유로 4명 (6.0%), 언론 매체의 홍보가 2명 (3.0%), 기타가 5명 (7.5%)이었다 (Table 1). 기타라고 응답한 5명 중 호르몬 치료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명, 유방암 가족력 때문에 1명, 유두 분비물 때문에 1명, 유방명울과 통증 때문에 1명이었다. 모든 응답자중 3명은 2개 이상의 복수 응답을 하였고, 이중 한 명은 4개 항목에 응답하였다.

유방촬영술 시행에 대한 장애를 묻는 질문에는 유방촬영술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응답한 15명 중 2명이 응답하지 않아 13.3%의 결측치를 보였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4명, 26.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유방암으로 진단될까 봐 두려워서 (3명, 20.0%),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3명, 20.0%), 귀찮아서 (2명, 13.3%), 기타 (1명, 6.7%) 등 이었다 (Table 2). 기타라고 대답한 사람은 비용이 비싼 이유를 들었다. 유방 촬영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 3명은 유방 촬영을 안받으 이유를 묻는 문항에도 응답하였고, 귀찮아서가 2명, 시간이 없어서가 1명이었다.

유방암의 지식에 관한 5문항은 유방자가검진의 시기, 유방암 검사를 받는 간격, 병원에서의 유방암 검진의 시작 나이, 유방암의 원인, 그리고 유방암의 위험인자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모두 틀린 경우는 8명 (9.8%), 1개를 맞춘 경우는 24명 (29.3%), 2개를 맞춘 경우는 33

명 (40.2%), 3개를 맞춘 경우는 12명 (14.6%), 4개를 맞춘 경우는 3명 (3.7%)이었고 5개 모두 맞춘 경우는 2명 (2.4%) 이었다. 평균 정답수는 1.80개 이었으며, 화순 (1.66개), 서울 (1.43개), 부산 (2.02개), 및 춘천 (1.92) 과 비교하였을 때,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산 지역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p = 0.000$, $p < 0.05$).

고 찰

유방암의 발생률은 1990년대(11)에는 여성암 중 3위였고 2000년(12)에는 여성암 중 15.1%로 2위, 2001년(1)에는 16.1%로 1위를 기록하였고 2002년(2)에도 16.8%로 1위를 이어갔다. 유방암의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예방과 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암학회 (American Cancer Society)(13)에서는 건강한 여성에서 조기 유방암 진단을 위해 20-30대는 의사에 의한 유방진찰을 3년마다 받고, 40대부터는 유방촬영술을 해마다 할 것을 권고하며 20대부터 유방 자가 검진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자가 검진, 35세 이상의 여성은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40세 이상의 여성은 1-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및 유방촬영술,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국립암센터 및 한국유방암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다 (4,11).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방검진 수검률에 대한 조사는 많지 않으며 이원철 등(11)이 1997년 의정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했을때 생애 수검률이 21.6%였고, 저자들이 조사한 2004년 화순지역(7)이 54.7%, 2005년 서울지역(8)이 54.7%, 2006년 부산지역(9)이 63.7%, 및 강원도 춘천지역(10)이 56.1% 이었다. 금번 대전지역에서는 81.7%의 여성들이 유방 촬영을 시행하여 이전의 네 지역 조사에서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검률을 보였다 ($p=0.000$, $p < 0.05$). 이는 연구 대상자 선정을 유방검진학회 기간 동안에 홍보를 통하여 무료 검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유방암검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인 선택 편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그간의 대한유방검진학회와 각종 대중 매체에서의 대국민 홍보에 의한 유방암에 대한 관심의 상승과 건강보험공단의 무료 검진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유방촬영술의 동기로는 정기검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가 74.3%로 화순(62.9%), 서울(60.5%/ 70.6%), 부산(66.6%) 및 춘천 (54.4%) 지역의 결과와 유의한 차이

Table 1. 생애 선별 유방촬영술의 동기

	응답 수 (%)
정기적인 건강검진	30명 (44.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을 보고	19명 (28.4%)
유방에 몽우리가 만져지거나 다른 증상이 있어서	6명 (9.0%)
기타	5명 (7.5%)
주위 사람 또는 가족이 권해서	4명 (6.0%)
드라마나 뉴스, 잡지를 보고 걱정이 되어서	2명 (3.0%)
무응답	1명 (1.5%)

Table 2. 생애 선별 유방촬영술의 장애

	응답 수 (%)
시간이 없어서	4명 (26.7%)
유방암으로 진단 될까 봐 두려워서	3명 (20.0%)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3명 (20.0%)
귀찮아서	2명 (13.3%)
기타	1명 (6.7%)
어디 가서 검사해야 하는 줄 몰라서	0명 (0%)
무응답	2명 (13.3%)

가 없었다. 유방촬영술의 장애에 대한 질문에 15명중 2명이 응답하지 않아 13.3%의 결측치를 보였으며, 시간이 없어서와 귀찮아서가 40%를 차지하여 여성들이 보다 쉽게 정기적인 유방 촬영을 받게 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유방암의 지식 정도는 보통 이하인 2개 이하를 맞춘 경우가 79.3%로 부산(67.5%), 춘천(66.7%) 보다 높았고, 서울(80.9%)과 화순(85.1%)과는 유사하였다. 평균으로 비교 시 부산이 화순보다 평균 0.36개 그리고 서울보다 평균 0.59개를 더 맞추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식 정도가 높았다. 부산지역은 대전 지역보다 0.22개를 더 맞추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0$, $p < 0.05$). 이 결과는 부산지역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서울 지역은 가장 낮은 지식의 정도를 보였으며, 이는 모집단의 수가 가장 크고 탈북자 및 노인 등 다양한 대상으로부터의 설문을 얻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Sadler (14) 등은 유방암에 대한 지식부족이 낮은 유방 자가 검진률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본 설문 조사를 이용한 이전 조사에서 부산 지역의 여성들이 유방 자가 검진률과 유방촬영 수검률이 높았고 유방암의 지식 정도도 높았다. 그러나 대전 지역에서의 유방 촬영수검률이 81.7%인데 비하여 유방암 지식 정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높지 않았으며, 부산 지역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이전의 조사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유방 촬영 수검률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가 검진률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어, 여전히 유방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부각시켰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6명의 외국인들이 참가하여, 다민족화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의 제한 점은 첫째로, 모집단의 수가 적다는 문제점과 함께 대상 여성들이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선택편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자료 수집 방법이 설문지를 나누어 준 후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집단 설문지법과 면접원이 질문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돕는 설문지 방법을 함께 시행하였는데 직접 기입한 경우 무응답과 복수 응답이 나오는 것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참여대상자의 기본 정보로서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지역사회 여건 등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러한 제한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좀더 보완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무응답과 복수 응답률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문항과 숙련된 많은 면접원이 설문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조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는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 수검률이 조사되었으나, 향후 대도시와 지방간의 유방 검진률의 차이에 대한 조사가 좀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는 일반시민의 유방암에 대한 조기검진 행태와 지식 정도를 알아보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암 조기검진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한국중앙암등록본부. 한국중앙암등록 사업 연례보고서 (2001.1-2001.12). 보건복지부 2003.2
2. 한국중앙암등록본부. 한국중앙암등록 사업 연례보고서 (2000.1-2000.12). 보건복지부 2002.3
3. 한국중앙암등록본부. 한국중앙암등록 사업 연례보고서 (2002.1-2002.12). 보건복지부 2003.12
4. 유방암 검진 질지침.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2008
5. 남정자, 최정수, 김봉정, 주훈배. 한국인의 보건 의식 행태: 1995년도 국민보건 및 보건 의식 행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1995
6. 이원철, 노은영, 김영복, 박용문, 맹광호. 제 25회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일반연제 32: 의정부지역 암 조기검진 현황 및 관련 특성 분석.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초록집. 1999
7. 김대봉, 김학희, 김미혜, 등.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전라남도 화순지역 주민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도. 대한유방검진학회지 2005;2:27-31
8. 김대봉, 김학희, 김미혜, 등.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서울지역 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과 행동. 대한유방검진학회지 2005;2:110-113
9. 양혜린, 오기근, 김미혜, 등.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부산지역 주민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도. 대한유방검진학회지 2006; 3:121-124
10. 김현수, 김학희, 김대봉 등.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강원도 춘천 지역 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도. 대한유방검진학회지 2007;4:135-139
11. 제 1회 유방암 조기검진 지침 개발 심포지움. 주관: 국립암센터, 한국유방암학회 2001
12. 한국인 암등록 조사자료 분석보고서 (1993.1-1993.12). 대한보건복지부 1995.3
13. American Cancer Society. ACS Guidelines for Early Breast Cancer Detection. Available at: <http://www.cancer.org> Accessed Apr 5, 2005
14. Sadler GR, Ryujin LT, Ko CM, Nguyen E. Korean women: breast cancer knowledge, attitudes, and screening behaviors. BMC Public Health. 2001;1(1):7. Epub 2001 Aug 13

Evaluation of Women'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s for Breast Cancer Screening in Daejeon Chungcheongnam-do by Survey

Ju Young Lee, MD¹, Hak Hee Kim, MD¹, Kum Won Kim, MD², Kyu Soon Kim, MD³, Seol Hwangbo, MD⁴, Ann Yi, MD⁵, Soo Jin Kim, MD⁶, Jin Hee Moon, MD¹, Myung Soo Ko, MD¹, Hyun Ji Kim, MD¹, Dae Bong Kim, MD⁷, Eun Young Ko, MD⁸, Mi Hye Kim, MD⁹, Min Jeong Kim, MD⁶, Eun Kyung Kim, MD⁶, Seong Hee Park, MD⁶, Eun Ju Son, MD⁶, Ok Hee Woo, MD⁵, Min Jeong Kim, MD¹⁰, Hoi Soo Yoon, MD¹¹, Bo Bae Choi, MD¹², Boo Kyung Han, MD⁸, Bo Kyung Seo, MD⁵, Eun Suk Cha, MD⁴, Won Chul Lee, MD¹⁴, Soo Young Chung, MD¹¹, Ki Keun Oh, MD¹³

¹Department of Radi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²Konyang University, ³Eulji University,

⁴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⁵Korea University, ⁶Yonsei University,

⁷Bundang Jeseang Hospital, ⁸Sungkyunkwan University, ⁹Kim Mi Hye Breast Clinic,

¹⁰Veterans Hospital, ¹¹Hallym University, ¹²Chungnam University

¹³Ajou University, ¹⁴Department of Epidermi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women's knowledge and screening behaviors for breast cancer in Dae-Jeon by survey.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included 82 inhabitant women, who participated voluntarily in free screening program for early detection of breast cancer.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age of participant, questions for knowledge of breast cancer, attitude and behaviors related to breast cancer screening. The ages of participants ranged from 32 to 67 years (mean age: 50.2 years). We compared this study with previous studies performed in Hwasun-gun, Seoul, Pusan and Chun-cheon.

Results: 46.3% of participants had been performed breast self examination and 81.7% of participants had been performed screening mammography. The most frequent cause of related breast cancer screening was regular check-ups (44.8%) and the most frequent barrier was inconvenience of take time (26.7%). In knowledge of breast cancer, the mean value of correct answer was 1.80 in Daejeon.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ities in terms of knowledge of breast cancer. Pusan showed the highest values(2.02) among the cities ($p=0.000$, $p < 0.05$).

Conclusion: These data suggest that active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are essential for early detection of breast cancer. This study may be applied to plan and develop screening program.

Index words: Breast cancer; Self examination; Mammography; Survey

Corresponding author: Hak Hee Kim, M.D.